

문학

# 기독교 문학의 전형연구

우수한 몇 편의 세계문학 작품을 통하여

강요열

천안의국어대학 국문학 교수, 본회 회원

기독교 문학의  
전형연구

35

1

줄고, 『한국 현대 기독교 소설 연구』<sup>1)</sup>로써 필자는 우리나라 기독교 문학(소설)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고, 그에 수반하는 본질과 특성, 내용과 기능 및 작가, 기법 등을 여기서 언명했다. 또한 그 실제적 양상으로 몇 편의 현대 한국 문학 작품을 거론하여 이를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의 기독교 문학은 그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소설의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본다는 점을 밝혔다. 그 후 여러 해가 흘러갔지만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눈에 띄게 예쁘고 탐스러운 꽃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수수하고 또 그저 고만고만한 것들이 다투어 피어날 뿐, 척박한 환경 탓인지 아직은 그야말로 팔묵할 만한 작품을 만나기 어렵다.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유럽 문학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종교사상의 소설문학은 근대소설이 생기고도 이백여 년

1) 줄고, 『한국 현대 기독교 소설 연구』(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이 지난 다음에 나왔음<sup>2)</sup>을 상기해서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 아니면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겨우 일 세기하고도 10여 년밖에 안되었으니 그걸 기대하기란 시기상조라고 치부해버리고 말 것인가? 사실 문화적, 지성적 풍토가 역사적 경과와 비례하여 성숙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대체로 물리적 시간의 충분한 경과가 완숙하고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게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조금의 마음을 잠시 체쳐 두고 얼마간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성급함이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필자는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른 데로 돌려 볼 것을 권한다. 흔히 여성들이 백화점이나 고급 패션을 순례하면서 눈장보기(eye shopping)를 통해 유행안목을 세련시키듯 우리에게겐 부재하는 근사한 작품(물론 기독교 소설)을 가진 여타의 문학을 일별함으로써 그 향상을 도모해 보자는 게 본고의 근본 의도다.

여타의 문학이란 말할 것도 없이 외국 문학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본격적인 기독교 문학 작품을 의미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는 우리 문학의 전범으로 삼아도 괜찮을 작품들이다.

2

당연한 순서라 하겠지만 개별 작품을 곧바로 거론하는 일보다 우선해야 할 논의는, 과연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가 밝혀져야만 한국 기독교 문학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와 같은 단편적인 글에서 다양한 기독교 문학의 본질 또는 특성들을 소화해 내기란 무리일 수밖에 없으므로 논지 전개상 특히 중요하고 언급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약간의 해명을 곁들이고자 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sup>2)</sup>을 참조 할 것). 첫째, 기독교 문학이라면 대체로 '종교 문학'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문학 앞에 붙여진 '기독교'란 한정어가 무엇보다 그렇게 수용되기를 요구하는 탓이다. 그렇기는 하나 기독교 문학도 엄연히 본격적인 문학일

2) 이상설, 「신문학 초창기와 기독교」, 『언어와 상상』(문학과 지성사, 1980) p.246.

뿐만더러 이를 제치고 강조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 예술적 자질을 갖출 때 그 의의가 제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적 세계관(혹은 인생관, 가치관 등도 예외는 아니다)이 지배적 주제로 나타나는 작품이며, 그에 대한 집념이 작품 창작의 주요한 동인이 되는 문학<sup>3)</sup>이라 하겠다. 일반문학에 대해 하나의 "대립적인 개념"<sup>4)</sup>으로 쓰인 기독교 문학은 여하튼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상의 특성을 그 다음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이는 부연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과 우주와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것, 즉 기독교적 사유의 문학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경험의 한 형태로서 기독교가 문학적 상상력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와 같은 기독교 문학은 현실을 중시하는 믿음의 문학으로서, 궁극적으로 생명 혹은 구원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주지하듯이 종교는 현실의 인간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 또한 이 점에서 다른 종교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한 특정한 종교를 표방하는 기독교 문학의 가치가 어디서 찾아질 것인지는 분명하다. 이와 같은 종교의 본질을 문학 내적 원리로써 최대한 실현함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독교의 진리를 문학적으로 구현하여 독자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그들을 죄와 파멸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갖는 문학, 따라서 예술의 현실적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문학을 우리는 기독교 문학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 문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때 생명과 구원의 문학으로 작용하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표준으로, 그것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무리 위대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독자들이 종교의 경전으로만 치부하여, 읽지 않는다면 한낱 무용

3) 이 주장은 일견 앞의 그것과 모순되는 견해로 비쳐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독교 문학도 무엇보다 문화적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여기서는 특히 이를 판단하는 인식의 우선 순위를 그곳에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4) 콘스탄틴 황제 때로부터 바로크 시대 초기까지 유럽 문학은 극히 기독교적이었다. 그래서 굳이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유럽 문학이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하나의 문학 범주를 형성한 다음 비로소 제기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거론하게 된 역사는 의외로 일천한데,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낭만주의 이후에 대두되었다(Curt Hohoff, *Was ist Christliche Literatur?*, 한승홍 역, 두란노서원, 1986, p. 11, 참조).

지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 문학<sup>5)</sup>은 기독교의 복음을 문학의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전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세계에서 비기독교적 인물이 경험하는 온갖 사건들로 부각되어 나타낼 때 금상첨화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기독교 문학은 '힘의 문학'이란 고유한 기능을 갖는다. 왜 그런가? 진리의 언어가 소유한 설득력 때문이다. 성경이야말로 그러한 힘의 한 원동력임을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기독교 문학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sup>6)</sup>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의 문학<sup>7)</sup>이 됨은 마땅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 문학의 담당자는 과연 어떤 인물이어야 하며, 그 기법은 어떠한지 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기독교 문학 작가의 자격에 배타적 제한을 두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생의 원리로 삼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생산하는 신앙인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작가는 어떤 특별한 신앙체험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가장 열성적으로, 성경적 표현을 빌린다면 '달란트'<sup>8)</sup>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문학의 형태로 전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결코 무신론자는 창작하지 못한다는 폐쇄적 논리를 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이 없는 작가가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고자 온전히 종교사상적 작품을 쓸 것인가는 아무래도 의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삶과 세계를 기독교적 사유로 수용하지 않을 때 그러한 작품의 제작은 불가능한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문학은 작가의 문학 정신, 혹은 사상이 창작 요건으로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 문학 형식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인간 구원이란 심원한 목표를 성취해야 할 기독교 문학은 어떻게 표현될 때 더욱 효과적일까? 어떤

5) 주1)의 책, pp.22-28. 참조.

6) 이 때의 변화란 거의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

7) 드 퀴시(De Quincey)는, 사람을 가르치는 '지식의 문학'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 '힘의 문학'을 얘기한 바 있다. 또한 정한숙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참고할 만하다. "위대한 작가의 소설은 그 효과가 지대하므로 가령 존재의 질서까지 변경시킬 수 있다. 가치관, 윤리관을 변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적응해 나가는 인생의 태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한숙, 『소설 기술론』 (고려대 출판부, 1973), p.6. 참조.

8)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란, 원래는 금은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재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이를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목적이든 그것을 실현할 적절한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 문학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그 나름의 기법이 분명 존재한다고 믿는다. 요컨대 이는 작품의 평이성이라 말할 수 있다. 곧 모든 기독교 문학은 되도록 평이하게 쓰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코 특별하지 않고 우월한 기법도 못되는 평이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기독교 문학이 왜 창작되었는가 하는 목적에 기인한다. 거듭 밝혔듯이 진리를 통해 독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기독교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종교다)하기 위해 작품은 쓰인다. 그런데 독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면 소기의 목적이 성취되기 어렵다. 게다가 독자들 가운데는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무지한 이들도 상당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랴. 그러니까 오로지 효과적인 전달을 문제 삼는 일반 문학의 기법과, 거기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우선하는 기독교 문학의 그것 사이에 이런 본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문학의 평이성이란 하나의 기법일 뿐, 절대적 덕목이라거나 작품의 가치(질)를 보증하는 것으로 중시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3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명한 독자들은 필자가 기독교 문학으로 판단하는 작품의 요건을 대충 짐작했으리라 믿는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는 몇 편의 소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론 대상은 외국의 소설이다. 그 나라는 일본과 러시아인데, 필자의 생각으로 빈약한 한국 기독교 소설의 모범이 될만하다고 여겨져서 몇 작품을 간략하게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 문학 중에서 택한 작품은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의 『빙점(氷点)』이다. 대개 일본의 기독교 문학으로는 엔도 슈사쿠(遠 周作)가 쓴 『침묵(沈黙)』을 먼저 꼽는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할 때 필자에게는 기독교 문학 범주에서 벗어나는 작품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 작품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다른 자리를 빌어 하고자 한다.

『빙점』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장편소설이다. 작가의 지명도

도 일본의 다른 소설가들 못지 않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드문 일본에서 그녀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녀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남다른 데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오른쪽 폐에 공동이 생긴 그녀는 무려 13년간 투병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면서 37세가 되기까지, 아름다운 청춘의 전부를 꼬박 병상에 누운 채 지냈다. 폐결핵 외에도 척추 카리예스, 결핵성 외치루, 간장 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며 절망적인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녀다. 병상에 누운 채 척추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한다. 손거울을 통해서만 입에 넣어주는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바깥 경치는 겨우 창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한 번만이라도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고 제 발로 걸어서 세상 구경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의 성격은 점점 거칠어졌으며, 병상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끝내는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른다. 그때 그녀 곁에 나타나 온갖 정성을 기울여 헌신적인 간호를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마에가와(前川正)라는 독실한 크리스천 청년이었다. 그의 감화로 그때부터 그녀는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다(하지만 마에가와는 그 무렵 폐결핵으로 먼저 죽고 만다)

이렇게 남다른 신앙체험을 한 그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평생 이를 근본으로 창작활동을 계속했다. 『빙점』 역시 작가의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임은 물론이다. 작품에 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이렇다. 일본의 최대 일간지인 아사히(朝日) 신문이 1964년 창립 8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공모한 1천만 엔 현상 문예 당선작으로, 그녀가 기독교적 진리로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동지에서 쓴 장편소설이다. 당시 수많은 화제<sup>9)</sup>를 불러일으킨 『빙점』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만약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

9) 화제 가운데 몇 가지만 들면 아사히 신문이 현상공모할 때 응모범위를 개방하여 기성문인과 신인을 망라 했는데, 전국에서 기성작가를 위시한 총 731편이라는 많은 작품이 쇄도했다는 것, 원고지 1천 매 (4백자) 내외의 작품에 일천만 엔이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액의 상금을 걸었다는 점, 그리고 당선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라고 처음 썼다는,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가와(旭川)시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무명의 가정 주부였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이었던 그녀답게 당선 상금도 그 지역의 교회, 전국 각지에 요양중인 환우들, 집을 팔아 뒷바라지를 해준 양친 및 형제들, 그리고 젊어서 홀로 된 후 아들만을 위해 헌신해 온 시어머니 등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풀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기독교의 진리가 불행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 그래, 나도 써야만 한다.”<sup>10)</sup>

이와 같이 투철한 신앙적 사명감에서 붓을 들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며, 이를 타인들에게도 알리고자 『빙점』을 썼던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미우라 이야코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문학 작가에 해당한다. 또한 작품 내용이 참으로 평이하게 전개되어 모든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빙점』이 지닌 특징이다. 비록 학력은 부족해도 웬만큼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 핵심을 파악할 정도로 쉽게 쓴 작품이다. 더욱이 흥미로운 소설 내용은 독자들을 강하게 흡인한다. 아울러 차분한 줄거리 전개 역시 펍 자연스럽다. 이런 표면상의 이유만으로도 이 작품은 한 편의 손색 없는 기독교 문학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우리는 여기서 작가의 재능과 더불어 작품의 예술적 의의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 또한 『빙점』의 종교문학적 특질을 한층 강화해 주는 것이다.

『빙점』의 주인공 ‘요오코(陽子)’, 그녀는 쓰지구찌 병원장 게이조오의 딸이다. 하지만 실은 양녀다. 게이조오가 자기의 귀여운 딸 (루리코) 을 살해한 범인 사이시의 딸인 줄 알면서도 (물론 그 출생은 비밀로 하고서) 데려와 길렀던 것이다. 이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를 실천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자신의 병원 안과 의사 무라이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아내 나쓰에로부터 배신감을 느껴 보복하고자 함이었다. 요오코는 오빠인 도오루와 그 친구 기다하라, 양모의 친구 다스꼬 등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로 성장한다. 양모 나쓰에도 처음엔 원수의 자식인 줄 미처 모르고 친딸 못지 않게 애지중지하며 기른다. 그러나 나중에 요오코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그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다. 어느덧 여고 3학년이 된 그녀에게 도오루의 친구 기다하라가 구애를 한다.

그러자 나쓰에는 그녀의 행복을 파탄시키고자 ‘너는 우리 딸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자식’ 이라 저주를 퍼붓는다. 심성이 끈고 착할 뿐 아니라 온유했던 그녀는 그 동안 사실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돌을

10) 三浦綾子 著 (李雪影 譯), 『續 氷点』 (人文出版社, 1983), p.6. 참조.

물어뜯는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굳건히 살아가려 애써오던 터였다. 그런데 이 저주만은 요오꼬의 마음을 얼음 덩어리처럼 얼어붙게 만든다. 살아갈 의미를 상실한 그녀는 마침내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기도하지만 뜻대로 안돼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후 탄생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떳떳하지 못한 불륜의 자식이란 것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을 때 주인공 요오꼬가 살아갈 방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작가는 이러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원죄'에 관한 진지한 모색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해결책, 곧 구원의 방법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오꼬는 이미 자신이 친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어머니 나쓰에가 더러 그녀에게 이해 못할 가슴아픈 일을 행하더라도 입술을 깨물며 견뎌냈다. 즉 '지금까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결코 나쁘지 않다, 나는 옳다는 생각에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sup>11)</sup>이었다. 그러나 살인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의지하고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 실제로 그녀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면 자신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깨달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름대로 밝게'<sup>12)</sup>, '구김없이 살아 온 요오꼬'<sup>13)</sup>의 마음의 빙점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그녀의 원죄의식은 한층 차원을 높여 발전해 간다. '설혹 살인범의 딸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양친, 그 양친의 양친, 또 그 양친의 양친으로 핏줄을 더듬어 가다 보면 매우 고약한 짓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sup>14)</sup> 것이라고. 또한 '타끌만큼 악도 발견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건방지고 죄많은 인간'<sup>15)</sup>이라는 참회의 경지로까지.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사상과 합치되는 의식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서 결국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알다시피 자살로써 매듭지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작가는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살펴보자. 요오꼬의 아버지 게이조오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자칫 어린 딸을 죽음으로 또 아

11) 미우라 아야꼬 (김정옥 옮김), 『빙점』 하권 (소담 출판사, 1996), p. 196.

12) 미우라 아야꼬 (김정옥 옮김), 『빙점』 하권 (소담 출판사, 1996), p. 196.

13) 미우라 아야꼬 (김정옥 옮김), 『빙점』 하권 (소담 출판사, 1996), p. 196.

14) 앞의 책, p. 198.

15) 앞의 책, p. 198.



내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하게 할 수 있었음을 알고 속죄할 결심을 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숨기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는 마음을 부여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요하는 아내와 관계를 속히 회복하고 싶었다. 교회에서 그는 성경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죄와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죄의 문제로 고뇌하는 요오꼬에게도 성경을 주어 읽게 한다. 자신이 야기한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그가 준 성경을 읽는다. 이를 통해 원죄의 문제도 풀려지기 시작한다. "요오꼬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다. 아사히가와를 출발할 때 게이조오가 준 것이었다. 요오꼬를 위해 사두었던 모양이다. '요오꼬, 요한복음 제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꼭 읽어보도록. 아버지' 하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 대목에는 간통의 현장에서 끌려나온 여인이 못 사람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는 장면이 적혀 있었다.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사형이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물어세운다.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설교하던 평소의 언동에 모순되고, 또한 당시의 지배자인 로마제국의 법률에 위반된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유대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예수는 침묵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게이조오는 줄을 그어 놓았다. 요오꼬는 뼈저린 이품을 느꼈다."<sup>16)</sup>

요오꼬는 새파란 기가 도는 유빙 벌판을 응시하며 성경 말씀을 떠올린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녀는 유빙처럼 냉혹한 자기의 마음을 의식한다. 용서해 달라는 생모의 애절한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했던 그녀는 작품 결말 부분에서 불타는 유빙을 바라보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요오꼬의 눈 앞에 유빙은 분명히 활활 불길을 울리며 타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 방울씩 피가 떨어지듯이 유빙이 물들여져 갔다(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요오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렸다는 핏줄기를 지금 눈 앞에 보고 있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감동이었다. 이제까지 좀처럼 믿어지지 않던 신의 실재가 돌연 아무 저항도 없이 믿어졌다. 이 황량한 유빙의 벌판이 핏방울처럼 물들며 불타오르는 것을 봤을

16) 三浦綾子(李雪影譯)『續氷点』人文出版社, 1986), p.447.

때 요오꼬의 내부에서도 갑자기 불타는 유병에 호응하는 듯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황홀한 불길을 바라보면서 요오꼬는 이제야 인간의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의 아들인 성스러운 생명 이외에는 죄를 갚아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는 순순히 믿을 수 있었다.

요오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다. 요오꼬는 다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생각하고만 있었다. 자기 앞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다고 마음속으로 느꼈을 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신비함도 말해 주고 싶었다.”<sup>17)</sup>

죄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도 근본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 다만 용서받는 것 이외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란 깨달음과 함께 예수만이 그 자격이 있음을 긍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지금까지 고뇌하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녀를 저주한 양모뿐 아니라 불륜의 씨앗인 자기를 낳아 고아원에 맡겨 버린 생모마저도 용서하고자 전화 수화기를 든다. 이상의 논의로써 우리는 『빙점』이 기독교의 진리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고자 창작되는 기독교 문학의 미덕을 골고루 갖춘 작품임을 확인해 보았다. 아주 자연스러운 스토리 전개와 평이한 문체, 잘 짜여진 구성과 작품 주제를 결코 생경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 등 거의 나무랄 데 없는 소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는 『빙점』의 두드러진 성과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강조하는 바다. 곧 기독교의 진리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작가 정신 말이다. 『빙점』과 같은 한국 기독교 소설의 출현을 기대한다.

### 3-2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부활』 역시 기독교 소설의 전범으로 삼을 만한 작품이다. 물론 『부활』을 본격적인 기독교 문학으로 보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작품이 과연 기독교의 진리를 내세워 오로지 신앙을 통한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한 편협한 소설이냐 하고 반문할 수 있겠기 때문

이다. 일리 있는 비판임에 틀림없다. 『부활』로써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 종교, 사상 또는 예술적 목표는 폭넓은 것이어서 아무튼 한두 가지로 제한하는 건 무리다. 그렇기는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 이 작품은 매우 뛰어난 기독교 소설이다. 이는 특히 『부활』이 그것의 요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예술관이나 창작의 동기 또한 본고의 논지에 잘 부합하는 까닭이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그의 나이 71세 되던 해, 3월 잡지 『니빠』에 발표했다. 이전에 그가 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더불어 3대 걸작 중 하나인데, 만년의 톨스토이의 사상과 정신, 예술, 종교의 모든 것이 구현되고 결합된 위대한 작품이다. 로맹 롤랑이 『톨스토이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가의 예술적 성서이며 최후의 불꽃이고 나아가 예술로서 행한 유언이랄 작품이다. 그는 20세를 전후한 대학시절과 뻬제르부르그 시절, 방종하고 향락적인 생활<sup>18)</sup>을 연속했다. 그의 연보를 따르면 기도하는 일과 교회에 다니는 일도 그쳤다고 한다. 무위도식하면서 젊음이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다.

그러던 그가 중년기에, 예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하고 난 뒤 사상의 일대 전환을 하게 된다. 귀족과 지주생활은 허위이며 농민만이 진실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농민과 더불어 살며 농민과 함께 신(神)을 믿으려고 결심했다. 당연히 그의 예술관은 변화했고 작품의 창작 목적도 바뀌었다. 어떻게? 소위 그의 잘 알려진 예술관, 곧 예술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의의가 있다는 주장으로 말이다.

아무튼 『부활』은 이 같은 사상 전환 이후에 발표된 소설로서, 그 동기는 몇 가지가 있으나 필자는 여기서 이 점만은 꼭 지적하고 싶다. 그가 방탕하던 시절 숙모 집의 마샤 라는 순진한 하녀를 농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타락하고 쫓겨나서 일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제자인 비류프프한테 직접 고백한 애긴데, 아마도 톨스토이는 종교적(신앙적)으로 거듭난 뒤 그녀에게 속죄하고자 이 작품을 쓴 게 아닌가 싶다. 또 한 가지 기독교 소설로서 『부활』이

18) 대학생 톨스토이는 학교보다 사교계에 더 열심이었다 한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어머니 : 2세 때, 아버지 : 9세 때)를 여인 그는 고모부 내외의 감독 밑이라 자칫하면 탈선하기가 쉬웠다. 그는 공부는 하지 않고 둘째형 세르게이와 함께 도박장이나 창녀촌에도 출입하곤 했다는 것이다(민병산, 『톨스토이』(창작과 비평사, 1985), p.71. 혹은 p.237의 연보 참조).

지닌 미덕은, 근본적으로 '평이' 하고 '간결함'이란 작품의 특징을 들 수 있다. 그의 예술관이 바뀌면서 모든 문제를 평이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써나갔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무지한 민중들을 위한 그의 깊은 배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작가와 작품에 관계된 이같은 사실들은 비록 충분치는 않으나 『부활』의 기독교 문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증명해 준다 하겠다. 이제 작품을 통해서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 보기로 한다. 톨스토이 만년의 장편소설 『부활』은 주지하듯이 표면적으로는 한 창녀의 정신적 갱생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작품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곧 마태복음(18장 21 - 22절, 7장 3절)과 요한복음(8장 7절), 누가복음(6장 40절) 등 신약성경의 구절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중심사상<sup>19)</sup>을 요약한 것이라 하겠다. 인용된 성경의 핵심은 '죄의 용서'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은 죄의 크기를 불문하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의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속죄하고 누구든지 구원될 수 있다는 작가의 사상이다.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에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된 창녀 까쭈사와 그녀를 좇아 시베리아 유형을 자청하는 네홀류도프, 이 두 사람의 육체적 혹은 정신(영혼)적 부활<sup>20)</sup>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은 작품의 바른 해석을 위해 의미가 있다. 순진한 처녀였던 까쭈사가 타락하여 매춘부가 되고 살인절도 혐의로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은 어째서인가? 바로 그 재판의 배심원으로 나온 주인공 네홀류도프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고모네 집 하녀 겸 양녀로 있던 그녀를 그는 농락한 후 버렸으며, 그래서 까쭈사는 그토록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랑한 그로부터 배신당한 그녀의 삶은 급기야 처참한 나락으로 곤두박질한다.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심신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점점 냉혹한 인간이 되어갔다. 이런 그녀를 회복시키고자 네홀류

19) 그 중에서도 특히 마태복음(5,6,7장)은 그가 기독교 진리로써 회심한 뒤 행동과 실천으로 세워간 이른바 톨스토이즘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20) 잠깐 언급한 것처럼 까쭈사의 부활만 논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이다. 그녀를 회복시킨 네홀류도프의 변화가 먼저 언급되어야 이야기의 조리가 선다. 그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말이다.

도프는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처음에는 양심과 의무감에서 그러했지만 나중에는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친다. 지난 날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뿐더러 그녀에게 청혼하기에 이른다. 참으로 정성을 다해 그녀가 쓰라린 옛 상처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까쭈사의 갱생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보장된 미래마저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네흘류도프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마침내 결실을 얻는다. 그의 진실한 회개와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동료 죄수 시몬손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유롭게 -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 놓아주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회복한 그녀의 모습은 이렇하다.

“작별인사는 하지 않겠소.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 네흘류도프가 말했다. “용서하세요” 그녀는 겨우 들릴까말까 한 음성으로 말했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세요’라고 말했을 때의 사팔뜨기의 신비한 눈동자와 괴로운 듯한 미소를 보면서 네흘류도프는 그녀가 결심하게 된 원인의 두 가지 가정(假定)중에서 둘째 번 것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네흘류도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까지나 그와 관계를 갖게 되면 자기가 그의 일생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므로, 시몬손과 함께 그에게서 떠나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슬펐던 것이다. 그녀는 네흘류도프의 손을 꼭 쥐었다가 재빨리 몸을 돌려나가 버렸다.”<sup>21)</sup>

죄에 대한 뉘우침과 빠져서린 속죄, 그러한 토양 위에서 다시 움트고 꽃핀 한 인간의 진실한 사랑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건강한 생명을 되찾게 해주었다. 심신이 함께 병들어 파멸로 치닫고 있던 까쭈사라는 한 매춘부의 도덕적, 정신적 갱생은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평자들이 작가의 사상을 대표<sup>22)</sup>시키는 인물로 여기는 네흘류도프의 회심은 과연 어떤 계기로

21) 폴스토이(이철 역), 『부활』 - 삼성판 세계문학전집3 (삼성출판사, 1991), pp. 482-483.

22) 폴스토이(咸逸根 譯), 『復活』 (正音社, 1963), p.7. 참조. 여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초기작인 『地主의 아침』이나 『青年時代』에도 『復活』에서처럼 드미트리 네흘류도프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이로 보아 작가 자신의 자서전적 인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가능하게 되었는가? 대개 『부활』을 거론하는 경우 까쭈사의 갱생만 중시하는데, 이를 밝히는 것도 그 못지않게 필요한 일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네 홀류도프는 플스또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작품에서 네 홀류도프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로 하여금 이전의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은 성경의 진리였다. 그때까지 다만 양심과 인간에 대한 의무감에서, 혹은 정신적 존재에 대한 각성의 차원에서 속죄하려 했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전적인 부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는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확신하지 못한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을 읽음으로 완전히 인식하고 믿게 되자 그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지금껏 몇 번씩이나 읽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가 이제서야 비로소 명확히 해득되는 것이다. 흡사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는 이 복음서 가운데서 자신에게 계시된 필요하고 중요하며 또한 기쁜 요소를 흠뻑 흡수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알기는 했었지만,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는 명확히 의식을 하게 된 것같이 여겨졌다. 지금이야말로 그는 완전히 인식하고 또 믿게 된 것이다. (중략) 그날 밤부터 네홀류도프에게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의 신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생의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것은 미래가 말해줄 것이다”<sup>23)</sup>

이렇게 복음(성경)으로 거듭난 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곧 현재의 그것과는 전혀 새로운 생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다. 그뿐 아니다. 말씀(진리)으로 거듭난 자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귀한 영혼을 구원(까쭈사를 변화시키듯)하는 것이니 성경은 인간에게 더 없이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23) 앞의 책, pp. 495-496.

끝으로 언급할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다. 톨스토이와 함께 도스토옙스키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기독교 문학을 논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그는 러시아 문학의 2대 지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 다른 지주인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신의 표현자' 라면 그는 '지식계급의 대표작가'로서 러시아의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 기독교의 사랑으로 속죄하려 했던 인물로 특징지어지는 작가이다.

톨스토이보다 더 우뚝 솟은 세계 문학의 높은 봉우리라 할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죄와 벌』은 아주 탁월한 소설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작품이 기독교 문학의 특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된다. 대부분 『죄와 벌』을 경탄하리만큼 정확한 심리묘사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스텝과 서스펜스가 깃들여 있는 소설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작품의 어떤 점이 기독교 문학의 요소인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중 두드러진 몇 가지만 얘기해 보려 한다. 우선 작가의 인물됨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괴팍한 성격의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허영심과 시기심이 많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잘 의심하는 편협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거기다가 간질과 병적이라 할 수 있는 도박벽이 있었다. 처녀작인 『가난한 사람들』이 발표되어 독서계에 일대 선풍을 일으키는 큰 성공을 거두자 그는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무렵 인텔리 청년들 사이에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신 사조가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는 한 서클에 가담한다. 그런데 당시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자유사상가에 대해 행한 탄압은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포함한 서클의 동료들은 체포되어 페트로 파블롭스키 요새 감옥에 8개월간 감금되었다. 그해 12월에 21명의 동료와 함께 사형<sup>24)</sup>이 선고되어 형장으로 끌려간다. 그는 씨미요노프 광장 기둥에 묶이고 사형 집행 병사들이 총을 들어올린 순간, 멀리서 하얀 깃발을 펼치며 나팔을 불면서 황제의 칙사가 달려온다. 그에게 사면과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한다는 칙령이 내려진다. 생지옥 같은 4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을 움스키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24) 이는 나중에 황제가 꾸민 연극이었음이 밝혀진다.

거기서 그는 제이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참다운 인간적 가치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형지에서 그에게 허용된 유일한 책인 성경- 남편을 따라온 어떤 부인이 건네준 신약성경-을 읽으며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은 크게 바뀐다.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이 싹트면서 구원을 기대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발터 니그(Walter Nigg)가 잘 지적했듯이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는 이처럼 유형지를 기점으로 두 부분<sup>25)</sup>으로 나뉜다. 즉 시베리아 옥중에서 겪은 쓰라린 경험 이전의 세속적인 삶과 그곳에서 소유하게 된 신앙에 의해 근본적으로 세계관<sup>26)</sup>이 변한 종교적 구원의 생활로 이후 도스토옙스키의 전 생애는 기독교의 신(神)인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감정을 안고<sup>27)</sup> 살아갈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에게는 가장 깊은 암흑과 고뇌에서도 구원의 빛은 반짝인다.<sup>28)</sup> 그가 신앙하는, 어둠의 속에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sup>29)</sup>을 확신한 후였으므로 자유인이 된 뒤 작가는 간질병과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빚더미에 올라앉는 등 잇단 불행에 시달리면서도 죄인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라 믿으며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을 잃고 염세적인 음울한 작가가 될 수 없었다.<sup>30)</sup>

이러한 그가 1866년에 종교(기독교)적 구원만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덕성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유형지에서 구상했던 작품을 발표한다. 이 작품이 『죄와 벌』이다. 소설의 내용은, 그의 또 다른 걸작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1860년대의 경제공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은 대도시 페체르부르크의 빈민가다. 그곳 5층 집 지붕 밑방에는 가정교사가 자리를 잃고 대학에도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라스콜리니코프가 살고 있다. 고향의 가족들도 참담한 곤궁 속에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구하고 자신도 비참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돈

25) 발터 니그 (임석진 역), 『도스토옙스키』 (분도 출판사, 1976), p.79.

26) 앞의 책, p.78.

27) 베르자예프 (유준수 역),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 (한양대학교 출판원, 1982), p.27.

28) 앞의 책, p.28.

29) 앞의 책, p.28.

30) 앞의 책, p.28.



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돈을 강탈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지하듯이 작품의 주인공 라스폴리니꼬프는 초인사상에 물든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잘못된 신념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할 결심을 하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는 커녕 사회적으로 무의할 뿐 아니라 존재가치도 없는 노파를 죽이고 그녀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오히려 합리화한다. 그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유망한 청년이 그의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 범죄행위는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선행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 일들이 여의치만은 않은 법. 순간적으로 함께 있던 전당포 노파의 선량한 여동생까지 살해하게 된다. 이 의외의 살인은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했고 심한 악몽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룩한 창부'라 불리는 순결한 마음씨의 소녀로부터 자수할 것을 권유받게 된다. 그는 결국 소녀의 도덕적 감화에 굴복하여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죄값을 치를 것을 결심한다. 마침내 자수하고 그는 시베리아 유형길로 떠난다. 소녀는 그를 뒤쫓아가 감옥 가까이에서 살면서 라스폴리니꼬프의 거듭나는 삶을 도와 준다.

상세하진 않으나 이와 같은 작품 경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와 벌』은 살인사건을 다룬 한 편의 추리소설이다. 이미 정평이 난 것처럼 주인공 라스폴리니꼬프가 노파를 살해하는 장면이나, 그 후 그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변민, 불안과 공포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심리묘사는 단연 압권이다. 그리고 빈틈 없는 추리소설적 구성 등은 작품의 문학적 성과를 한층 부각시켜 준다 하겠다. 세계적인 문호의 걸작품인 만큼 여기서 이외의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죄와 벌』의 심미적 가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필자가 강조한 것처럼 기독교 문학도 최소한 문학적 자질을 갖추었을 때 그 의의가 인정되는 문학이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단지 구호에 그칠 뿐인 기독교 문학 표방은 무의미하다. 『죄와 벌』이 내포한 기독교 문학의 작가적, 작품적 적합성 중에서 이제 그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조건이라 여겨지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언급함으로 본고를 매듭짓기로 한다. 그것은 소설 주인공의 구원이 진정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나 하는 문제다. 일견 작품 줄거리만 따르다면 순결한 '소녀'의 자기 희생적이고 극진한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조금 불완전한 해석

이라 판단된다. 피상적인 관찰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이유를 고구해 본다면 해답은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무엇인가? 라스폴리니코프를 변화시키고 참된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은 다른 아닌 성경이다.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는 쏘나가 가져다준,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그 성경을 통해서다. 창부생활을 하던 그녀 역시 성경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자기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 진리가 적힌 성경을 그에게 전했던 것이다. 작품에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자.

“아 참, 그렇군! 라스폴리니코프는 씩스레 웃으면서 말했다. “난 당신의 십자가를 받으러 왔소, 쏘나...” (중략) 쏘나는 말없이 서랍 속에서 실편 나무와 구리로 만든 두 개의 십자가를 꺼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성호를 긋고, 그들에게도 성호를 그어 준 다음 그의 가슴에 실편백나무로 된 십자가를 걸어 주었다... (중략) “최소한 한 번 만이라도 좋으니 성호를 긋고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쏘나는 애원을 했다. “아아, 그런 일쫓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진심으로 쏘나, 진심으로”<sup>31)</sup> 그의 베개 밑에는 신약성서가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집었다. 이 책은 그녀의 것이며 그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 주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는 유형 생활이 시작되던 무렵 그녀가 종교 얘기로 자기를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면서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병이 나기 조금 전에 자진해서 그녀에게 그것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녀의 신념이 이제 나의 신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녀의 감정이나, 그녀의 열망만이라도”<sup>32)</sup>

죄에 대한 심각한 고뇌로 ‘자살’ 까지 결행하려 했던 라스폴리니코프, ‘그러나 그는 다시 소생’ 했다. 쏘나가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 주었던 그 성경의 진리로써 그는 육체적, 정신적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작가는 작품 맨 끝에서

31) 앞의 책, p. 539-540.

32) 같은 책, p. 565.

『죄와 벌』을 쓴 의도를 이렇게 명백하게 서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의 진리가 ‘한 인간을 서서히 갱생’ 시키고 ‘재생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옮겨’ 가게 하고, ‘여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전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소설을 썼노라고. 무어라 해도 이 같은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수한 기독교 문학이라 할 수 있다.

4

요컨대 기독교의 진리를 심미적으로 구현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부여하는 문학을 일컬어 기독교 소설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라는 유력한 문학적 틀과 작품 구조적 논리로써 인간 구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의식해야 할 불가피성을 갖는 문학임도 언급했다. 그리고 작품생산의 주체인 작가는 남다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학정신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아울러 밝혔다.

이와 같은 종교 사상적 주제의 문학을 독자들이나 작가가 공히 선호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하튼 본격적인 기독교 문학은 이러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일종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학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편, 한국 현대 문학 작품 중에는, 기독교 전래 역사가 일천해서인지 두드러질 정도로 탁월한 작품(소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는 외국 소설들 중에서 몇 편을 뽑아 지금까지 소략한 논의나마 펼쳐 보았다. 물론 외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전범으로 삼아 우리 문학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개화와 결실을 얻고자 함이었다.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해 본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나, 러시아의 『부활』, 『죄와 벌』 등은 매우 뛰어난 기독교 소설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문학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소설들의 장점은 기독교 문학이기 전에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심미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은 우리 기독교 문학 작가들이 명심해야 할 일로 보인다. 이를 참고 삼아 한국의 기독교 문학도 미구에 이만한 수준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현대문학이 그 초창기부터 드러내는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 구원의 추구 혹은 삶의 궁극

에 대한 물음의 결핍<sup>33)</sup>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평자들의 대체적인 생각<sup>34)</sup>과는 달리, 이제 한국문학도 성공적인 기독교 소설을 낳을 만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믿는 까닭이다.

---

33) 이동하, "한국소설과 '구원'의 문제" 『집 없는 시대의 문학』(정음사, 1985), p.81.

34) 같은 책, p.29.